최근 소비 추이의 특징과 과제

徐 炳 壬*

한동안 침체되었던 소비가 최근에 들어서 빠른 증가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소비 증가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兩面的이다. 우선 적절한 소비 증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觸媒 역할을 하고 급격한 경기 하락을 막는 緩衝 역할도 한다. 그러나 과도한 소비 증가는 경기 흐름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물가 상승과 국제수지 적자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급격한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1]

현재의 소비 증가 추세는 수준면에서 아직은 과거에 비해 미미하다. 그러나 소비 증가 형태를 보면 과잉 소비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소비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의 경기 상승 기조를 건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소비 추이의 특징

1993년 2/4분기부터 민간소비 증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93년 2/4분기에 5.2%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민간소비는 이후 5.9%, 6.2%, 6.8%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비 증가세는 2/4분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4년 4월과 5월의 도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각각 8.8%와 8.0%로 1/4분기보다 높고,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93년 1/4분기 이후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최근의 소비 추이

	1993				1994	
	1/4	2/4	3/4	4/4	1/4	2/4
경제성장률	3.9	4.8	6.8	6.4	8.8	-
민간소비 증가율	5.6	5.2	5.9	6.2	6.8	-
도소매 판매액 증가율	8.3	8.3	8.3	9.0	7.1	-
소비재 수입 증가율	-2.4	-0.5	7.2	8.2	14.6	24.0

자료: 경제기획원. 1994. 「경제동향」. 6월.
한국은행. 1994. 「국민총생산」. 5월.
통계청. 1994. 「1994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6월.
무역협회. *KOTIS*.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이론경제 전공.

大型 소비와 選擇 소비가 는다.

최근 소비 증가 추이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현재의 소비 행태는 앞으로 과잉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민간소비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必須 소비보다 選擇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최근 소비 증가를 형태별로 보았을 때 내구재와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準내구재와 非내구재는 전체 소비 증가율를 밑도는 수준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내구재와 서비스 부문은 총소비 증가율을 웃돌 뿐만 아니라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표 2> 소비 지출 구성 추이

	1992	1993				1994
	1/4	1/4	2/4	3/4	4/4	1/4
(형태별)						
내구재	7.9	9.5	5.8	8.1	10.9	9.6
準내구재	8.5	4.4	3.3	3.0	6.0	4.7
非내구재	7.5	3.1	4.3	5.8	4.8	5.0
서비스	9.7	6.2	6.1	5.8	6.2	7.8
(목적별)						
교통·통신	20.7	19.2	27.5	22.4	17.1	36.7
식료품	22.9	4.0	5.6	7.8	4.5	14.3

자료: 한국은행 및 통계청.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또한 목적별로 보아도 소비의 대형화와 선택화 추세가 엿보인다. 목적별로 보면 교통·통신과 식료품이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1/4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계 지출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부문은 교통·통신이다. 교통·통신 부문은 92년과 93년 모두 2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94년 1/4분기에는 이보다도 높은 36.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교통·통신 부문 중에서 가장 큰 소비 증가율을 기록한 항목은 大型 소비이면서 選擇 소비인 자가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개인 교통비이다. 94년 1/4분기의 개인 교통비 증가율은 60.3%로 93년 1/4분기 증가율인 30.9%보다 두 배나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개인 교통비가 가계소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93년 1/4분기의 4.2%에서 94년 1/4분기에는 6.0%로 상승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는 94년 1/4분기말 현재 414만 8,000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23.8%나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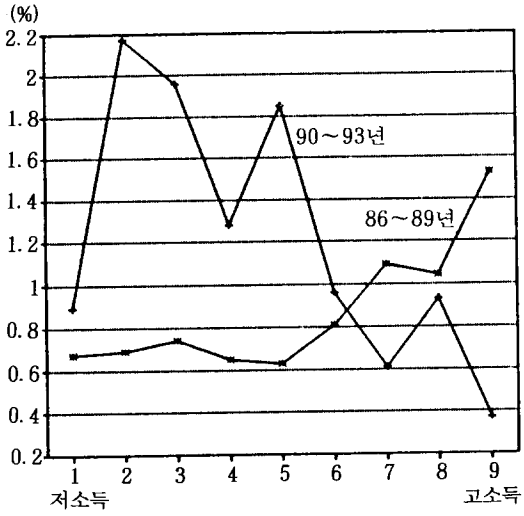
식료품은 93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94년 1/4분기에는 93년 1/4분기보다 3 배 이상 높은 14.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식료품 중에서도 지출 과다 소비이며 선택 소비인 外食費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94년 1/4분기 외식비 지출 증가율은 30.3%로 93년 1/4분기의 9.8% 증가보다 세 배가 늘어났다. 이에 비해 94년 1/4분기 주식과 부식의 소비 증가율은 각각 2.3%와 7.4%로 식료품 전체 소비 증가율인 14.3%를 훨씬 밑도는 낮은 증가율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식료품 지출에서 차지하

는 이들 항목의 지출 비중은 12.0%와 38.5%가 되어 93년 1/4분기보다 각각 1.4% 포인트와 2.5%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模倣 소비를 한다.

최근 소비 추이의 두번째 특징은 模倣 소비를 하는 점이다. 고소득 계층이 특정 부문의 소비를 선도하면 다음에 중소득, 저소득 계층 순으로 그 부문의 소비를 추종한다. 이러한 예는 자가용 승용차 구입 항목과 같은 대형 소비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1> 기간별 및 소득 계층별 소비 추이 (교통 · 통신)



자료: 통계청. 1994. 「1994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6월.
주: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을 1로 한 각 소득 계층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의 비율임.

소득 분포별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지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86년부터 89년까지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지출 증가율이 높았으나, 90년부터 93년까지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80년대에는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 구입을 선도하였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中低소득층이 이러한 소비 행태를 모방하여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이 급증하였다.

非소비 지출을 구성 내역별로 보면 조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은 지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은 급증하였다. 94년 1/4분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 증가율은 37.4%인데 이는 소비 증가세가 높았던 92년의 이자 지출 증가율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이자 지출 증가율은 93년 1/4분기보다 21.2% 포인트가 높아졌는데 이는 93년 이후의 가계 대출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표 3> 非소비 지출 구성 추이

	1992	1993		1994
		연간	1/4	1/4
전체 증가율	32.5	13.4	14.8	23.2
조 세	41.9	9.7	29.0	7.9
사회보장 분담금	27.2	17.6	27.3	11.2
이 자	40.5	23.7	16.2	37.4

자료: 통계청. 1994. 「1993 도시가계연보」. 5월.
통계청. 1994. 「1994년 1/4분기 도시 근로자 가계 수지 동향」. 6월.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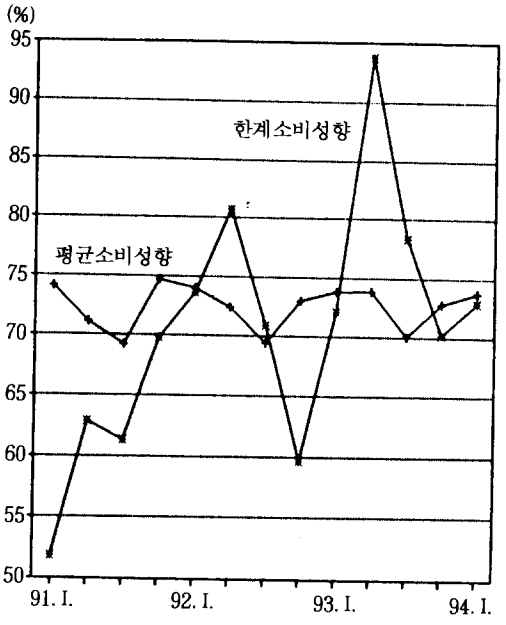
限界消費性向이 높아진다.

네번째 특징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91년부터 분기별 소비 성향 추이를 보면 평균소비성향은 70과 75 사이에서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은 50 선에서 95 선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등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등락 추이를 보이고 있는 한계소비성향은, 94년 1/4분기가 93년 2/4 분기부터의 하락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특히 93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을 웃돌다 4/4 분기부터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보다 낮아졌는데, 94년 1/4분기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소비성향과의 차이가 근소해졌다. 이러한 한계소비성향의 빠른 증가는 소비 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계소비성향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소비 지출의 대형화와 선택적 지출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模倣 소비 현상과 무관치 않다. 소비 행태의 고급화와 모방성에 의해 소비 증가 폭이 소득 증가 폭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계소비성향의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보다 높은 과소비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 증가 추세에 의해 국내 總저축률은 91년의 36.1%에서 점차 하락하여 93년에는 34.9%를 기록하였다.

<그림 2> 소비 성향 추이



자료: 통계청.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 지출/가처분 소득) × 100
한계소비성향 = (소비 지출 증가분/가처분 소득 증가분) × 100

소비 증가의 원인

최근 소비 증가의 원인은 소득, 자산 가치, 금융 여건, 세제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 소득과 자산 가치의 상승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계 소득이 늘고 있는 데 있다. 名目 가계소득 증가율은 93년 2/4분기까지 하락세였는데 93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94년 1/4분기에는 명목 소득 증가율이 13.1%에 달하였다. 이러한 명목 소득 증가의 원인은 92년 후반기부터의 경기 회복과 노사분규의 확대를 막기 위한 임금 상승률의 상향 조정에 있다. 명목 소득의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률의 상대적 안정에 따라 실질 소득 증가율도 93년 3/4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94년 1/4분기에는 6.2%가 상승하였다.

<표 4> 가계 소득 및 자산 가치 추이

		1992	1993				1994
		1/4	1/4	2/4	3/4	4/4	1/4
소득	명목	23.4	10.5	8.0	9.1	8.4	13.1
	실질	15.2	5.7	3.1	4.4	2.8	6.2
자산	주가	606.3	666.8	745.7	717.8	866.2	939.1
	지가	0.43	-0.42	-2.88	-2.64	-1.64	-0.41

자료: 통계청. 1994. 「1994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 수지동향」. 6월.
토지개발공사 지가정보처.
주: 1) 綜合株價指數는 기간말, 1980. 4. = 100 기준임. 나머지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地價는 전국 평균값이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가계의 자산 가치도 커지고 있다. 綜合株價指數는 93년 1/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94년1/4분기말에는 939.1로 92년의 1/4분기보다 54.9%가 증가하였다. 地價 역시 93년 1/4분기부터의 감소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감소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94년 1/4분기 지가 하락률은 불과 0.41%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하반기 지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의 본격화에 함께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금융 여건의 개선

소비자 금융 여건의 개선도 소비 지출을 늘리는 데 큰 몫을 하였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할부와 현금서비스의 사용 증가율이 거의 세자리 수를 넘어서고 있다. 94년 1/4분기 신용카드의 국내 부문 사용 내역을 보면 총액 증가율이 105.2% 증가하였는데, 이중 할부는 111.7%, 현금서비스는 128.7%가 증가하였다. 국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급증하였다. 93년의 경우에 일시불은 51.1% 가 증가하였으나, 현금서비스는 92년에 비해 5 배가 증가하였다. 94년 1/4분기에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93년의 같은 기간 사용액이 급증했던 관계로 35.4%가 감소하였으나, 일시불은 111.4%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은 소비의 거대화, 선택적 지출, 모방화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 대금의 외상 분할과

미래 소득의 선지출(빚)에 의해 상당 부분 충당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5> 소비자 금융 여건 추이

신용 카드 사용		89	90	91	92	93	94 1/4
국내	총액	68.5	58.1	5.8	17.1	66.6	105.2
	일시불	72.3	62.9	38.0	24.3	31.0	64.4
	할부	29.3	57.7	6.2	15.6	83.3	111.7
	현금서비스	84.6	56.4	7.0	13.5	83.0	128.7
국외	총액	154.3	64.2	23.5	26.5	92.1	55.1
	일시불	162.0	63.6	27.0	24.3	51.1	111.4
	현금서비스	100.0	70.0	-7.6	53.5	498.8	35.4
가계 대출 비중		18.4 (43.2)	18.7 (24.4)	18.4 (20.1)	18.8 (22.2)	20.2 (26.1)	20.6 ( )

자료: 한국신용카드협회, 1994.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5월.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가계대출 비중은 예금 은행과 非통화 금융기관의 산업별 대출액 중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家計 貸出의 증가

家計 貸出도 89년 이후 크게 늘었다. 89년의 경우에 가계 대출 증가율은 43.2%에 이른다. 이후 가계 대출 증가율은 매년 20% 이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과 비통화 금융기관의 전체 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가계 대출 비중은 88년의 16.6%에서 94년 1/4분기에는 20.6%로 4.0% 포인트가 커졌다.

이러한 가계 대출 증가율이 늘어난 원인은 경기가 90년부터 침체기에 들어섬에 따라 기업의 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다가, 가계의 소비 자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데 있다.

稅制 개선 효과

한편 근로소득세 免稅点의 상향 조정 등과 같은 세제 변화도 소비 여건을 개선하였다. 세제의 개선 효과는 가계의 非소비 지출 중 조세 부담액 증가율이 급감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가계의 非소비 지출 중 조세 증가율을 보면 94년 1/4분기의 경우에 7.9%로서 93년 1/4분기의 29.0%에 비해 21.1%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소비 증가의 영향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 국내 경제 내에는 물가 상승 압력 요인과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소비와 경기·물가·경상수지 간의 인과 관계를 Granger 검증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선 경기 회복은 소비 증가의 원인이 되나 소비는 경기 회복에 앞

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 증가는 경기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표 6> 소비와 경기·물가·경상수지 간의 因果 관계 분석

	Granger 검증 결과		
	← 소비	→ 소비	판정
국민총생산	채택	기각	→ 소비
소비자물가	기각	기각	⇔
경상수지	기각	기각	⇔

주: 1) Granger 검증은 변수 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임. 여기에서는 71년 1/4분기부터 93년 3/4분기까지의 각 변수를 8분기 시차를 두어 F(8, 66) 값을 구하여 각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음.

2) ← 소비는 소비가 각 변수에 미치는 관계를 표시하고, → 소비는 각 변수가 소비에 미치는 관계를 표시함. ⇔는 상호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한편 Granger 검증에 의하면 소비 증가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 상승 역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가 증가될 경우에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 상승은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됨을 나타내 준다. 소비와 경상수지 관계 역시 물가와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앞으로 경기가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소비 증가가 수반되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과 국제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책 과제

최근의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나타날 부정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소비에 시장 원리가 작동토록 하는 것이다. 수급 원리에 의해 소비 증가 품목은 가격 상승에 의해 소비를 자동 조절케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사회 내에 건전 소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지도층의 과시 소비 풍조가 사라져야 한다. 가정의례준칙과 같은 소비 억제 제도와 법규는, 불합리한점은 고쳐져야하지만, 과소비 억제 정신은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낭비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不法 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사채업자의 脫法的인 신용 카드 轉用을 근절시켜야 한다.

세번째는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소비재 수입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피해를 준다는 차원에서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제 혜택과 같은 저축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저축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